

내외 소식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 연차 대회참석

지난 3월 28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스테이크 부장이신 이 호남 형제님이 미국 연차 총회 및 신학 연구원 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발하였다.

씨 피에이 항공편으로 한국을 떠난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님은 미국 체류 기간 동안 연차총회와 전 세계 신학 연구원장 회의에 참석한다. 브리감 영 대학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모임에 참석할 예정으로 있다.

5, 6 와드 대지 구입

그동안 5와드와 6와드는 자체 건물 없이 전세로 건물을 빌려 사용해 왔으나 이제 이들 두 와드는 머지않아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대지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5와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옆건물과 대지를 함께 구입, 건물은 90평 규모로 개축을 서두르고 있으며 6와드는 600평 대지위에 새로운 예배당을 지을 계획이다.

영남 지방부 상호부조회, 창립 133주년 기념식 갖다

영남 지방부 상호 부조회에서는 지난 3월 22일 부산 지부에서 상호 부조회 회장단 및 회원, 지방부장단 40여 명이 함께 모여 상호 부조회 창립 13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합창 경연 대회를 가졌는데 지정곡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과 자유곡 1곡을 불러 동래 지부가 영예의 1등을 차지하였다.

창립을 기념하기 위하여 간단한 기념품을 판매 하였는데 이날 수익금은 상호 부조회 기금으로 쓰여지게 된다.

한편 마산, 진해 지부도 각 지부별로 기념식을 가졌다.

호남 지방 대회

3월 22, 23일 광주 지부에서 호남 지방 대회가 개최되었다.

틸 선교부장이 관리한 이번 지방 대회에서 김 동환 형제는 지방부장단 제2 보좌로, 박 병진 형제는 지방부 서기로, 김 용장 형제는 동광주 지부장으로 각각 부름받았다.

김 동환 형제는 오랫동안 동광주 지부장을 역임했으며 지방부 서기로 부름받은 박 병진 형제는 박 병규 지방부장의 동생이다.

여수 지부와 광주 지부 합창단이 부른 찬송으로 대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선교부장단은 선교 사업에 대해 강조하셨는데 틸 선교부장은 참석한 회원들 중 21세 이상 되는 회원에게 앞으로 3개월 동안 한 가족을 선정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어 그들과 함께 지방 대회에 참석하도록 목표를 주셨다.

이번 대회에는 350명이 참석하였다.

영남 지방 대회

3월 8, 9일 새로 단장된 부산 지부 예배당에서는 영남 지방대회가 개최되었다.

카페트를 깔고, 최근 대관장단의 지시에 따라 주변을 말끔히 정리한 예배당은 대회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 주었다.

선교부장단은 지방부장단이 새로운 의욕과 영적인 지도력으로 지방부 회원들은 영적으로 인도하고 있음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계속 노력하도록 권고하셨다.

특히 8월로 다가온 한국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 일찌기 신문 배달을 하여 적금을 계속하고 있다는 어느 회원의 간증은 지방 대회에 참석한 모든 회원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참석한 325명은 한국의 두 번째 스테이크를 부산에 조직한다는 목표를 더욱 새롭게 하고 한국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몰몬 남미 상 파울루에 첫 신전 건립



브라질, 상 파울루-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몰몬) 대관장은 3월 1일 남미에 첫 신전을 건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교회 당국자에 따르면 신전은 브라질, 상 파울루시 부탄타 지역의 아베니다 프로프 프란시스코 모라토 북쪽에 건립된다. 공사는 1975년 말 이전에 착공되며 공사 소요 기간은 약 18개월로 잡고 있다.

이 사실은 남미 지역에서는 처음 갖는 교회 지역 대회에서 공식 발표 되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브라질과 남미 지역에서의 계속적인 발전이 세계 전역의 수많은 몰몬 집회소와는 성격이 다른 신전 건립 결정의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집회소는 일요일 예배와 주중의 교육, 문화 오락 활동으로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이나 현재 사용중인 16개 신전에는 지역 교회 역원이 서명한 추천서를 제시하는 교회 회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상 파울루의 신전은 주로 남미에 거주하는 몰몬 회원이 이용하게 된다. 남미의 회원수는 브라질의 4만을 포함, 약 14만에 이르고 있다. 남미의 교회 회원수는 지난

10년 동안 4,5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킴볼 대관장에 따르면 신전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지상에 사는 동안 합당한 방법으로 침례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돌아가신 선조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리 침례를 받는 침례가 그 한 가지이다. 전세로부터, 현세, 내세까지 인간의 영원한 과정을 알려 주는 “엔다우먼트”, 신권의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하여 집행되는 의식으로 죽은 다음에 까지 영원히 계속되는 결혼 등이다.

교회 회원은 자신의 신전 축복을 받은 후에도 자주 신전을 찾는다. 그들은 신전 의식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엔다우먼트, 결혼 의식을 대리 수행해 준다.

현재 몰몬의 신전이 있는 곳은 미국, 캐나다, 영국, 스위스 및 뉴질랜드이다.

신전은 교회 건축가인 에밀 비 헛저가 설계했고 시공도는 교회의 특수 건물을 담당하는 교회 건축과에서 준비 중에 있다.

신전은 1년 전 교회에서 구입한 5.5에이커 중 1.5에이커 부분에 세워진다. 기타 부지에는 스테이크 센터,

방문자 센터 그리고 다목적 건물이 설 예정이다.

신전 외부는 이태리산 흰색 대리석으로 처리된다.

2만 평방 피트의 단층 건물 입구에서 세계 될 탑 꼭대기에는 표면을 24카럿 금으로 도금한 자기 에나멜 첩탑이 올라가게 된다. 창은 동으로 도금한 창살에 색유리로 장식된다.

정원은 분수, 인도, 지역 고유의 나무, 관목, 꽃으로 장식된다.

내부에는 의식을 집행하는 방이 두 개 있는데 이 방은 하늘의 가장 높은 영광의 의로운 원리를 상징해 주는 해의 영광의 방이라고도 불리운다. 이외에도 결혼인봉방이 네 개 있으며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상징, 대리석으로 만든 황소 열 두 마리 등에 침례탕이 올라가 있는 침례방이 있다.

이밖에도 접수 지역, 사무실, 의식받을 사람이 흰색

신전복으로 바꾸어 입는 강의실, 신부 강의실, 신전 사업 종사자를 위한 취사실 및 식당, 세탁소, 유아실이 달려 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1830년 미국에서 조직되었으며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팔리 피프렛이 이끄는 선교사가 1851년 말 칠레에 도착했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으로 수 개월 머물다가 철수했고 교회에서는 1925년에 다시 선교사를 파견하였다.

역시 교회의 사도였던 멜빈 제이 발라드 장로가 선교사를 이끌고 1926년 12월 6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도착했다.

그후 약 반세기 동안에 남미의 모든 나라에 교회가 소개되어 현재는 선교부 열 다섯 개, 스테이크(교구에 해당) 18개가 있고 집회소는 브라질에서만 150개를 포함 500여 군데나 된다.

박 인실 자매, 주간 스포츠 표지 인물로

서울 스테이크 제1와드 회원인 박인실 자매가 창간“주간 스포츠” 표지에 소개됨과 동시에 두페이지의 지면에 그의 훌륭한 배구 실력과 인품을 대서특필하여 그를 아는 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사 배구 선수라고 소개된 기사는 거포 박 인실, 뛰어난 점프력, 강 스파이크는 천하무적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또한 그는 선교사업에도 힘을 기울여 동료 선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있다.

그의 기사가 실린 창간호 주간 스포츠의 관계 기사를 옮겨 실는다.



1페이지에 실린 주교 박인실 박인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사 배구선수이다.

한국인인 박인실은 1925년 12월 6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도착했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으로 수 개월 머물다가 철수했고 교회에서는 1925년에 다시 선교사를 파견하였다. 역시 교회의 사도였던 멜빈 제이 발라드 장로가 선교사를 이끌고 1926년 12월 6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도착했다. 그후 약 반세기 동안에 남미의 모든 나라에 교회가 소개되어 현재는 선교부 열 다섯 개, 스테이크(교구에 해당) 18개가 있고 집회소는 브라질에서만 150개를 포함 500여 군데나 된다.

배구 선수의 천하 무적 거포 박인실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사 배구 선수라고 소개된 기사는 거포 박 인실, 뛰어난 점프력, 강 스파이크는 천하무적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또한 그는 선교사업에도 힘을 기울여 동료 선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있다. 그의 기사가 실린 창간호 주간 스포츠의 관계 기사를 옮겨 실는다.

배구 선수의 천하 무적 거포 박인실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사 배구 선수라고 소개된 기사는 거포 박 인실, 뛰어난 점프력, 강 스파이크는 천하무적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또한 그는 선교사업에도 힘을 기울여 동료 선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있다. 그의 기사가 실린 창간호 주간 스포츠의 관계 기사를 옮겨 실는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사 배구 선수라고 소개된 기사는 거포 박 인실, 뛰어난 점프력, 강 스파이크는 천하무적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또한 그는 선교사업에도 힘을 기울여 동료 선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있다. 그의 기사가 실린 창간호 주간 스포츠의 관계 기사를 옮겨 실는다.

스포츠 플레이어

<키버 스토리>

巨砲 朴仁實

우리나라 최초의 여學士 배구선수

배구 선수의 천하 무적 거포 박인실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사 배구 선수라고 소개된 기사는 거포 박 인실, 뛰어난 점프력, 강 스파이크는 천하무적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또한 그는 선교사업에도 힘을 기울여 동료 선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있다. 그의 기사가 실린 창간호 주간 스포츠의 관계 기사를 옮겨 실는다.

